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8월 5일 금요일 (음 7월 8일)

제307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초고속이동수단, 새만금서 연구·생산·시험

###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새만금 최종 선정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총 9046억원 투자해 조성

시속 800km까지 주행 목표

국·도민 교통편익 증진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미래형 차세대 초고속 이동교통수단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에 전라북도 새만금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하이퍼튜브 부지 유치 공모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가 중·장거리 이동수요 증가와 대중교통 이용시간의 가치 증대에 따라 관련 실증 연구개발 사업의 적정 부지를 찾기 위한 것으로,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년간 총 9,046억원을 투자해 초고속 추진동력, 부상시스템, 아진공터량 및 무선시스템, 아진공 튜브 인프라 건설, 하이퍼튜브 시스템 통합·운영 기술을 개발하고 최종적으로는 시속 800km까지 시험 주행에 성공해 국·도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 연구개발사업 종료 이후에도 하이퍼튜브 차량 운용, 안전 등 관련 기술 시험·검증·인증에 위한 종합



국토교통부의 미래형 차세대 초고속 이동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가 새만금으로 최종 선정된 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유치 확정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시험센터로 지속 운영 예정이다. 전북도는 공모 선정 성과에 대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최적의 부지조건과 김관영 도지사가 당선인 시절 인수위 때부터 공모전략 수립을 직접 진두지휘 하는 등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 17일 국토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가 관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에는 전북(새만금)을 비롯하여 충남(예산), 경남(함안)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공모 선정을 위해 인력,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도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고 유치의향서, 유치계획서 작성 등 진행상황을 직접 수시로 체크했을 뿐만 아니라 4일 개최된 평가위원회에 도지사가 발표자로 직접 나서, 새만금 지역이 하이퍼튜브 실증 연구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평

가 위 질의응답에 직접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퍼튜브는 항공기의 속도와 열차의 도상 접근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차세대 교통수단으로써 공기저항이 거의 없는 아진공(0.001기압) 상태의 튜브 안에서 최고 시속 1,200km까지 주행 가능하며 자기력으로 차량을 추진·부상시키는 방식으로 운용하며 미국 등 주요국에서 기술 선점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11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독자 개발한 축소형 하이퍼튜브를 통해 진공상태에 가까운 0.001 기압에서 시속 1,019km까지 달성하는 등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는 하이퍼튜브 시험선로 및 종합시험센터 부지가 전북 새만금으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예비타당성조사 등 연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에는 2027년까지 연구개발 및 설계를 진행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시험선로 및 종합시험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한 후 2031년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북도는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공모 선정에 따라 종합시험센터 구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새만금개발청 및 군산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하이퍼 튜브 시험선로 및 종합시험센터 부지 제공과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지원, 민원 및 유지관리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 소재 연구기관과 공동 R&D 추진 및 과제를 발굴해 하이퍼튜브 기초·응용·상용화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하고 첨단융복합소재, 철도차량제작, 전기자동차, 에너지 관련

선도기업과 기술지원 연계를 통해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연구와 실증사업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를 기회로 새만금의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항공, 철도, 항만 자율주행과 더불어 미래 교통망 실현의 장으로 조성하며, 전북 핵심기술인 탄소복합재, 연료전지, 배터리, 전기추진, ICT와 하이퍼튜브 융합 응용 플랫폼 구축해 전북도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새만금 지역의 고군산케이블카, 해양테저스포츠체력, 해수욕장,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와 연계하여 글로벌 관광산업의 메카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 유치를 통해 미래첨단 신교통 R&D 클러스터 및 지역신산업 연구생태계를 구축해 하이퍼튜브 신산업의 중추거점으로 자리매김이 가능하도록 협력·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이 미래 성장의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했으며, 9천여명 규모의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를 계기로 새만금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를 함께 힘을 모아 주신 180만 전북도민, 전북도의회,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등 관계기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1600여년 왕궁의 모습 '한눈에'

ICT기술로 실감 콘텐츠 선봬...백제왕궁박물관 개관

가상체험관 증축을 거쳐 새롭게 개관한 곳이다. 총 사업비 약 39억원이 투입돼 2020년 8월부터 착공해 연면적 4,107㎡에 지하층 지상층 규모로 건립됐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의 혁신적 리모델링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가상체험관(VR, 홀로그램 등), 개방형수장고, 실내 발굴체험실 등을 갖춰 스마트 체험형 역사박물관으로

진화했다. 왕궁리유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무빙 디오라마 모형, 터치형 인터랙션, 홀로그램 등 다양한 모형과 영상물을 곳곳에 배치해 사실감을 더했다. VR·홀로그램·라이브스캐치 등 다양한 영상매체를 활용한 가상체험관은 실제 물이 흐르도록 재현한 백제정원실과 유물 사용방법 등을 체험할 수 있어 1600년전 왕궁으



로 시간여행을 하는 듯하다. 어린이 디지털체험실 등 정보통신기술(CT)에 익숙한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해

백제왕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왕궁리 유적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박물관 내부에서 아름다운 조망을 볼 수 있도록 자연조광 설계로 특화했다. 상설전시실에서 가상체험관으로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하늘과 땅이 맞닿은 지평선 전망을 마주한다. 왕궁리유적 전체를 관람할 수 있는 옥상 전망대에서는 용화산을 품은 왕궁리유적과 동쪽으로 제석사지를 볼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전북도, 수시 승진인사 단행

전북도가 4일 수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승진인사는 과역, 휴직 등에 따라 국장 및 과장급 등 승진요인이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총 14명이 대상이다. 이들 중 강해원 자치행정과장(사진)은 국장급으로 승진했다. 강 과장은 지난 1992년 행정 7급으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노인장애인과장과 농식품산업과장, 김계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김경수 기자



토 일요일 신문 쉽다

**미래**  
미래를 만드는 교실

**책임**  
모두를 위한 책임교육

**협동력**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

#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 시작합니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자치**  
소통과 참여로 따뜻한 교육공동체

**안전**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공동체**  
평화와 공존의 세계시민교육